



순창군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차별화된 농특산물 유통을 추진하면서 돈버는 농업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 순창농특산물유통 '청신호'

### 참두릅·아로니아·완두콩·딸기 등 전국 롯데마트·이마트 등 출하

순창군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차별화된 농특산물 유통을 추진하면서 돈버는 농업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지난 2014년 출범한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인 지난해 10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한해동안 1억 9800만원의 물류비와 공동선별비 1억 3800만원을 농가에 환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인 구립농협, 동계농협, 서순창농협, 순창농협, 순창축협 등 5개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으며 유통조직 전문화, 전략품목 집중육성, 통합마케팅을 통한 순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확대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책에 의거 지난 2014년 정식 출범했다.

특히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인 공동브랜드 활용과 공동선별지원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실제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군의 통합마케팅 브랜드인 '울안애'와 연계한 '순창이랑'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했으며 업무 개시 2년 만에 참두릅, 아로니아, 완두콩 등을 전국 롯데마트 전 지점에 출하하고, 농협 유통센터,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딸기를 출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홈쇼핑 채널을 통한 농산물 유통성과가 눈에 띈다. 순창군 조공은 아로니아 생과 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참두릅을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친환경 쌀의 경우에는 4회에 걸쳐 약 111톤을 판매하고 지난 9월에는 친환경 운광벼 계약재배 40톤 전량을 판매하는 성과도 거뒀다.

공동선별을 통한 규모화와 전문화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순창군조공은 지난해 12월부터 금과

지역 딸기공선회를 지원해 250여톤의 딸기를 공동선별하고 대형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또 GAP인증도 획득해 순창딸기의 브랜드 강화에도 기여했다. 두릅, 배, 복숭아 선별 시설도 GAP인증을 추진 중이다.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회 대표는 "올해는 순창 참두릅이 전국 최초 홈쇼핑 방송을 타고 유명세를 탔다"며 "이처럼 공동조합법인의 다양한 마케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민조직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공동조합법인은 유통사업 이외에도 (재)순창군발효미생물진흥원과 MOU를 체결하고 병에 강하고 식물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퇴비를 생산해 올해 30만포를 공급하고 펠리피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영철 기자



임실군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6 제2회 임실N치즈축제'와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와 대표관광지 25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 임실군,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 팸투어

### 치즈체험·테마파크 관람·각종 재난상황 체험하는 119안전체험관 방문

임실군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6 제2회 임실N치즈축제'와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와 트래블로거 25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팸투어 1일차는 치즈축제 주무대인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체험 및 테마파크 관람, 각종 재난상황을 체험하는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했다.

이어, 짜릿한 매력이 있는 전북종합사격장에서 클레이사격과 필봉문화촌

'웰컴 투 증빙이골 5 히히닝락' 공연 관람은 큰 호응을 얻었다.

2일차는 물안개가 아름다운 옥정호와 섬진강변 물문화관을 비롯해 임실 치즈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치즈마을 관람 등 군의 주요관광 지원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젊은 대학생 기자단의 감각 있고 특색 있는 아이템 및 콘텐츠 개발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매체의 노출을 통해 군 대표관광지 및 치즈축제 사진 집중 홍보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래블리더와 트래블로거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학생 관광기자단인 트래블리더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행전문 파워블로거로 구성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군 대표관광지 등을 한국관광공사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개인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남원시보건소, 건강벽화 조성

### 어린이콘셉트로 한 금연·비만과 관련된 그림 등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와 삼성서울병원 임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만드는 건강한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남원제일고등학교 내에 건강벽화 및 화단을 조성했다.

이 학교에서는 비만교실, 금연교육, 아침밥먹기 캠페인에 이어 이번 행사는 삼성서울병원 지원으로 남원제일고등학교(학생 및 교직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학교의 어둡고 침침했던 담벼락은 학생 및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쳐 어린이왕자를 콘셉트로 한 금연, 음주폐해, 비만과 관련된 그림으로 채워졌고, 벽화 곳곳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변에는 꽃을 심어 일상에 지친 학생 및 교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장소로 조성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담장을 아름답게 꾸며준 남원시, 삼성서울병원 임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하다가 자신도 학교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얻은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벽화와 꽃을 보면서 친구와 선생님들이 건강은 물론 소소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담당 교사는 "이곳을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시간을 수시로 가져 학습은 물론 청소년기의 정서 함양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일로 보건소관계자는 자원을 확보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선의 발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삼성서울병원에 감사함을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홍보동영상 제작용역 최종보고회 가저

### 비전·핵심정책 등 전달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과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생태도시라는 지역 이미지를 알리고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동영상을 제작했다.

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군 간부공무원, 제작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홍보동영상 제작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홍보동영상은 제작비 9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100일을 내다보는 고창군 비전을 담아 대표 홍보동영상 1편과 다매체용 홍보영상 2편을 제작했다.

홍보동영상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의 언어로 제작해 군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과 대내·외 행사 등에서 고창을 소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홍보동영상에는 주요관광지와 농축산업, 경제, 교육, 전통, 문화를 비롯해 각종 축제와 행사 등 군정 전반과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소개 등이 담겨있으며 고창군의 비전과 핵심 정책, 미래상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고창군홍보동영상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최종 홍보 영상물이 나올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군, 가을에 어울리는 세레나데 음악회 개최

순창군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오는 30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가을세레나데 라는 주제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김재원씨가 지휘하는 드림필 오케스트라의 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바리톤 김동수씨의 신고산타령, 소프라노 고은영씨의 그리운 금강산, 테너 박진철의 오 솔레미오 등 아름다운 노래가 순창군민을 찾아간다.

중반부에는 인기가수 윤태규씨가 출연하여 마이웨이, 그놈의 숲 등을 불러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후반부에는 존멤버의 히트작 Perhaps Love, 코머스국의 Funicula-Funicula 등 성악가들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중창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가을 음악회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순창군과 드림필오케스트라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순창 향토회관에서 2회, 순창 실내체육관에서 1회, 순창고등학교와 순창제일고등학교에서 각각 총 5회의 공연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10월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순창장류축제장에서 11월에는 순창향토회관에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 남원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남원시는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을 새누리, 윤광벼 2개품종에 한해 총 146,547포대(5,862톤)를 산물벼(19,855포대)와 건조벼(126,692포대)로 구분 매입한다. 이는 남원시 전년도 매입 물량(5,765톤/144,135포대)보다 1.7%(96톤/2,412포대) 증가된 물량이며, 남원시 조곡 생산에상량(73,500톤/9,288ha)의 8.0% 정도 차지한 물량이다.

산물벼 매입은 관내 2개RPC(남원농협RPC, 지리산산RRC)에서 9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입하고, 건조벼 매입은 관내 읍·면·동정부양곡보관고에서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우선지급금은 조곡 40kg/포대 기준 산물벼는 특등 45,616원 1등 44,136원 2등 42,136원 3등 37,406원, 건조벼는 특등 46,480원 1등 45,000원 2등 43,000원 3등 38,270원을 매입당일 우선 지급하고, 통계청 전국 평균(10월~12월) 산지 쌀값 조사업과에 따라 내년 1월에 지역농협을 통해 최종 정산 지급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국립공원

# 고창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관내 보건기관과 병의원(26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60~64세(1952~1956년 출생자),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등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년과 같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단골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ad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병원이 없는 면지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 보건지소에서, 만 64세 이하 지역주민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등 신분 확인과 무료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전체 군민의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라과 질병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접종대상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통상 12월~이듬해 5월) 이전인 10월~11월 사이 여유 있게 접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순창경찰, 농산물 절도예방 주력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남계파출소(경감 이동권)에서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여 유동면 소재 농산물보관창고 등에 특별 방범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산물 절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농산물보관창고의 잠금장치 및 경보기 등 점검하고 특히 CCTV를 집중 점검 미설치된 농가주인에게는 방범예방에 설치 독려하였으며 필요시 경찰관에게 예약순찰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농민들에게 한해 짝의 결실로 얻은 농작물의 피해는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농산물보관창고에 대한 부단한 순찰과 진단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임실산림조합, 대리경영단지 설명회

임실군산림조합(조합장 정인준)은 26일 성수면사무소에서 성수면 산주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임실군산림조합은 산림청의 사유림 활성화 추진정책을 반영하여 임실군내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성수면을 대리경영 단지화함으로써 집약적이고 보속적인 산림경영과 임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여 산주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며, 조합의 사유림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사유림 경영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임실군산림조합에서 추진중에 있는 왕방 대리경영단지내의 산림면적은 총 1,030ha이며 600여명의 소재·부재산주가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 대리경영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약형 경영임지를 대상으로 산림조합과 산주동의를 증대되어야 하며 급변 실시한 산주·주민설명회에서 산주와의 대리경영 계약체결 증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며 토론을 실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